

‘슬럼프’ 윤이나, 국내 대회서 부진 탈출 나선다

내일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첫 타이틀 방어전 나서
방신실·박현경·고지우 등 KLPGA 최정상급 선수 출격

한국 여자 프로 골프 선수 가운데 가장 열광적인 팬덤을 거느린 윤이나가 약 9개월 만에 국내 팬들 앞에 선다.

윤이나는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 서귀포 시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북·서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윤이나가 우승했다. 이번이 타이틀 방어전이다.

올해부터 주 무대를 미국으로 옮긴 윤이나가 한국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작년 11월 SK텔레콤·SK 쉐더스 챔피언십 이후 거의 9개월 만이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 상 3관왕을 차지한 윤이나는 큰 기대를 안고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진출했지만, 지금까지 성적은 신통치 않다.

17차례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단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다. 컷 탈락도 7번에 이른다.

최고 성적은 US여자오픈 때 공동 14위다.

국내에서 뛰던 지난해 이맘때는 준우승 3번, 3위 한 번 등 7번이나 톱10에 진입하면서 우승 경쟁도 여러 번 펼쳤던 모습과 판판이다.

CME 랭킹 74위, 상금랭킹 64위는 윤이나가 미국 무대에 발을 디딜 때 그리던 위상과는 멀다.

시즌이 반환점을 넘어 막바지로 치닫는 시점에서 윤이나에게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는 지난해 1년 6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윤이나에게 단비 같은 우승을 안겨준 대회다.

이 대회 우승을 발판삼아 상금왕과 대상까지 내달릴 수 있었다.

기분 좋은 추억이 어린 국내 대회에서 윤이나가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이나는 “첫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게 돼 뜻깊고, 오랜만에 국내 팬들을 만나게 돼 무척 설렌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내 키워드는 ‘성장’이다. 매 대회, 매 순간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실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는다. 체력과 컨디션도 좋은 만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이틀 방어가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KLPGA 투어 하반기 첫 대회인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는 KLPGA 투어 최정상급 선수들이 줄줄이 출전하기 때문이다.

전반기에만 3승을 올린 이예원은 빼졌지만 2차례 우승한 방신실은 하반기에 승수 쌓기 가속 패달을 밟겠다는 각오다.

특히 방신실은 작년 이 대회에서 윤이나에게 2타 뒤져 준우승 했기에 설욕도 베퐀다.

영국 AIG 여자 오픈을 치르고 돌아온 방신실은 “제주도는 바람을 잘 읽고 안정적인 티샷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에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샷을 연습하며 준비했다. 그때의 감각을 이번 대회에서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주간의 투어 휴식기에 상반기 마지막 대회 오픈라 월드 챔피언십을 빼져 3주 동안 휴식하고 필드로 돌아온 박현경과 제주 출신 ‘버디 폭격기’ 고지우도 윤이나의 대회 2연패를 가로 막아설 후보로



윤이나가 오는 7일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해 9개월 만에 국내 팬들을 만난다. 사진은 지난 3일 영국에서 끝난 AIG 여자오픈에서 윤이나가 드라이버샷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꼽힌다.

올해 우승 한 번 없이 대상 포인트 2위, 상금랭킹 7위를 달리고 톱10 입상 10차례에 평균타수 1위를 지키고 있는 2년 차 유현조는 시즌 첫 우승을 목표

로 출사표를 냈다.

LPGA 투어 2인 단체전 다우 챔피언십에서 윤이나와 호흡을 맞췄던 박성현도 모처럼 국내 대회에 나선다.

박성현이 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5개월 만이다. 박성현은 2016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골프 어벤저스’ 김효주·유해란·고진영·최혜진, 국가대항전 출격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출전하는 김효주·유해란·고진영·최혜진.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조직위 제공〉

10월 LPGA 인터내셔널 출전 확정

오는 10월 김효주·유해란·고진영·최혜진이 국가대항전 형식으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 오픈을 마친 직후 5일 발표된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8개국 출전 선수 32명을 확정했다.

김효주(세계랭킹 8위), 유해란(9위), 고진영(16위), 최혜진(23위)은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 1~4번째에 올라서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나서게 됐다.

AIG 여자 오픈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한 김아림

은 세계랭킹을 12계단이나 끌어 올렸지만, 최혜진을 추월하지는 못해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출전은 2년 뒤에야 노릴 수 있게 됐다.

일본 대표팀은 4명 가운데 3명을 메이저대회 챔피언으로 채웠다.

작년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 후루에 아야카와 올해 세브론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사이고 마오, 그리고 AIG 여자오픈을 제패한 야마시타 미유가 합류했다.

나머지 한자리는 야마시타와 신인왕을 다투는 다케다 리오가 메웠다.

미국은 넬리 코르다, 에이절 인, 로런 코글린, 릴리아 부 등이 출전한다.

새로운 세계랭킹 1위 지노 티파꾼이 선봉에 선

태국팀은 에리아 쭈타누깐, 패티 타와타나깃, 잔네티 완나센 등이 합류했다.

이번 대회부터 신설된 월드팀은 리디아 고(뉴질랜드), 찰리 헐(잉글랜드), 브룩 헨더슨(캐나다), 슈웨이링(대만)으로 꾸렸다.

월드팀은 세계랭킹 기준으로 4명의 선수를 구성하기 어려운 국가의 탁월한 선수 4명을 묶었다.

이번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는 올해 치러진 5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자 전원, 그리고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전원이 출전하게 됐다.

2년마다 열리는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를 연고로 하는 OK윗맨 럭비단이 강원도 평창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에서 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OK 윗맨 럭비단 제공〉

“전국체전 우승 목표” OK 윗맨 럭비단 전지훈련

OK 윗맨 럭비단 광주의 2년 연속 전국체전 입상을 위해 평창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OK윗맨 럭비단(구단주 최운)이 23일까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과 알펜시아 스타디움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한다.

이번 하계 전지훈련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맞춰 기술·전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윗맨 럭비단은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6월 벌크업 기간을 보낸 선수단은 7월에는 체력

과 기본기에 초점 맞춰 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단은 이어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전략·전술을 정비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고려대 럭비부와는 합동훈련도 진행하면서 실전 감각도 조율한다.

오영길 감독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만큼, 올해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수단과 함께 ‘원 팀’이 돼 나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2월 오사카에서 1차 해외 전지훈련 소화했던 윗맨 럭비단은 오는 9월 두 번째 해외 전지훈련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작전을 맡다

조 선 아

Choo Sun A Solo Exhibition

7월 11일 - 8월 10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